

지속가능성 공시 입법화와 정책 동향 토론회 환영사

2026년 2월 5일(목)



존경하는 내빈 여러분, 반갑습니다.

국회 ESG 포럼 공동대표를 맡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민병덕입니다.

바쁘신 가운데 오늘 「지속가능성 공시 입법화와 정책 동향 토론회」에 참석해 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또한 공동주최를 맡아주신 (사)한국지속가능성인증포럼, 주관해 주신 이투데이, 그리고 후원기관인 금융위원회, 한국거래소, ESG경제, 국회 ESG 포럼 관계자 여러분께도 깊이 감사드립니다.

오늘 우리가 논의하는 지속가능성 공시는 더 이상 선택적인 정보가 아니라, 국제 자본시장에서 기업을 평가하는 기본 언어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기업이 어떤 가치를 창출하고 있는지, 어떤 위험을 인식하고 관리하고 있는지, 그리고 장기적으로 어떤 책임을 이행하고 있는지에 대한 정보는 이제 투자자와 시장이 기업을 신뢰하는 핵심적인 기반이 되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토론회의 핵심을 세 가지 축으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기업 부담 완화와 단계적 적용입니다.

지속가능성 공시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이미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제도가 현실을 앞서가게 되면, 기업에는 과도한 부담으로 작용하고, 그 결과 공시의 형식화나 품질 저하로 이어질 우려도 있습니다.

특히 중견·중소기업과 공급망 기업들은 준비 기간, 전문 인력, 비용 측면에서 분명한 제약과 안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속가능성 공시는 일괄적 도입이 아니라, 기업의 규모와 준비 수준을 고려한 단계적 적용, 그리고 기업이 예측 가능하게 준비할 수 있는 명확한 로드맵을 전제로 설계되어야 합니다.

둘째, 국제정합성입니다.

지속가능성 공시는 국내에서만 통용되는 제도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글로벌 기준과의 정합성이 확보되어야 우리 기업들이 해외 투자자와 자본시장에서 중복 부담과 불필요한 비용을 줄이고, 국제 경쟁력을 유지·강화할 수 있습니다.

주요 국가들 역시 지속가능성 정보를 사업보고서 체계 내에서 공시하도록 하여, 자본시장의 신뢰성과 국제적 비교가능성을 높이는 데 초점을 두고 있습니다. 이러한 국제적 흐름과의 정합성은 우리 제도 설계의 중요한 출발점이 되어야 합니다.

셋째, 투자자 신뢰입니다.

지속가능성 공시는 궁극적으로 투자자에게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고, 자본시장의 신뢰를 높이기 위한 제도입니다. 정보가 불충분하거나 기준이 모호하고, 검증 체계가 미흡하다면 공시는 오히려 시장에 혼선을 줄 수 있습니다. 기준은 명확해야 하며, 애매함은 기업의 준비를 어렵게 하고 투자자의 신뢰를 약화시킬 뿐입니다.

지속가능성 공시 도입을 둘러싸고 “지금 도입해야 한다”는 의견과 “아직은 이르다”는 의견이 계속 엇갈리는 이유 역시, 이러한 불명확성이 가져오는 혼선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기준이 명확하지 않으면 기업은 무엇을 준비해야 할지 알기 어렵고, 투자자는 정보를 신뢰하기 힘들며, 시장 역시 방향성을 잡기 어렵습니다.

이러한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저는 지속가능성 공시를 사업보고서를 통해 법정공시하는 것을 기본으로 하되, 기업의 현실적 부담을 함께 고려한 입법 방안을 준비하였습니다.

주요 국가들이 사업보고서 공시를 중심으로 제도를 운영하고 있는 것과 달리, 저는 여기에 한 걸음 더 나아가, 기업이 성실하게 기준에 따라 공시하는 경우 명확한 면책조항을 함께 두고, 제도에 참여하고 준비하는 기업들이 불이익이 아니라 혜택을 얻을 수 있도록 인센티브 구조를 결합하는 방식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현재 거래소 공시는 기업 입장에서는 사실상 자율 공시에 가까우면서도, 공시 내용에 대한 법적 책임에 대한 면책이 충분히 보장되지 않아 오히려 부담이 더 크게 작용하는 측면이 있습니다. 저는 이러한 구조를 개선하기 위해, 입법을 통해 공시의 법적 지위를 명확히 하되, 성실 공시에 대해서는 과도한 법적 책임을 제도적으로 완화하는 장치를 함께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보았습니다.

이러한 설계는 국제 기준이 지향하는 사업보고서 공시라는 큰 틀을 유지하면서도, 제도의 초기 안착 과정에서 기업이 감내해야 할 부담을 합리적으로 조정하기 위한 우리나라만의 보완적 접근입니다.

즉, 자본시장의 신뢰성과 국제적 비교가능성은 높이면서도, 기업이 준비하고 참여할 유인을 제공하는 균형 있는 입법 모델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토론회는 제가 준비한 법안을 일방적으로 설명하는 자리가 아니라, 정부·산업계·전문가·투자자 여러분의 다양한 의견을 경청하고, 이를 통해 보다 현실적이고 완성도 높은 제도로 다듬어 가기 위한 과정입니다.

오늘 주제발표와 토론에 참여해 주시는 모든 전문가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국회는 기업이 준비할 수 있는 제도, 국제 기준과 조화를 이루는 제도, 그리고 투자자가 신뢰할 수 있는 제도를 책임 있게 완성해 나가겠습니다.

끝으로, 오늘 논의된 내용들은 대한민국 지속가능성 공시의 방향을 정립하고, 시장과 기업이 함께 성장할 수 있는 실질적인 해법으로서 향후 입법 과정에도 충실히 반영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국회의원 민병덕